



■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구소(CIALC)

조영현

멕시코국립대학교(UNAM)의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구소(CIALC: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는 유네스코의 요청과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구 라틴아메리카학회(SOLAR: Sociedad Latinoamericana de Estudio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와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구 국제연맹(FIEALC: Federación Internacional de Estudio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의 결의로 1978년 탄생했다.

이 연구소는 설립 당시부터 유네스코 협력기구로 출발했으며,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 활동뿐 아니라 이 지역을 연구하는 각국의 유관 연구소와 학회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SOLAR와 FIEALC 등 국제 학회나 연구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조직하거나 조정하고,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연구소는 2007년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연구소로 개명되기 전까지 공식 명칭은 라틴아메리카연구 보급센터(Centro Coordinador y Difusor de Estudios Latinoamericanos)였다.

이러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멕시코국립대학교 산하에 설치된 것은 이 대학교가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관련 독립 학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대학원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부지와 시설, 자금의 지원 등은 연구소뿐 아니라 FIEALC의 주요 기관들이 이 대학교 내에 상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인 대학교의 지원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가 북미와 유럽의 시각에 기초한 일방적인 지역학 연구의 경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시각이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에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이 연구 분야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의 연구원과 교수들은 라틴아메리카 철학, 사상, 역사, 문학, 문화, 사회과학(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다섯 팀으로 나뉘어 연구를 수행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팀들 간의 협력을 중시한다. 특히, 초대소장을 맡았던 레오폴도 세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으로 구축된 철학 연구와 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에세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분석하는 연구도 그 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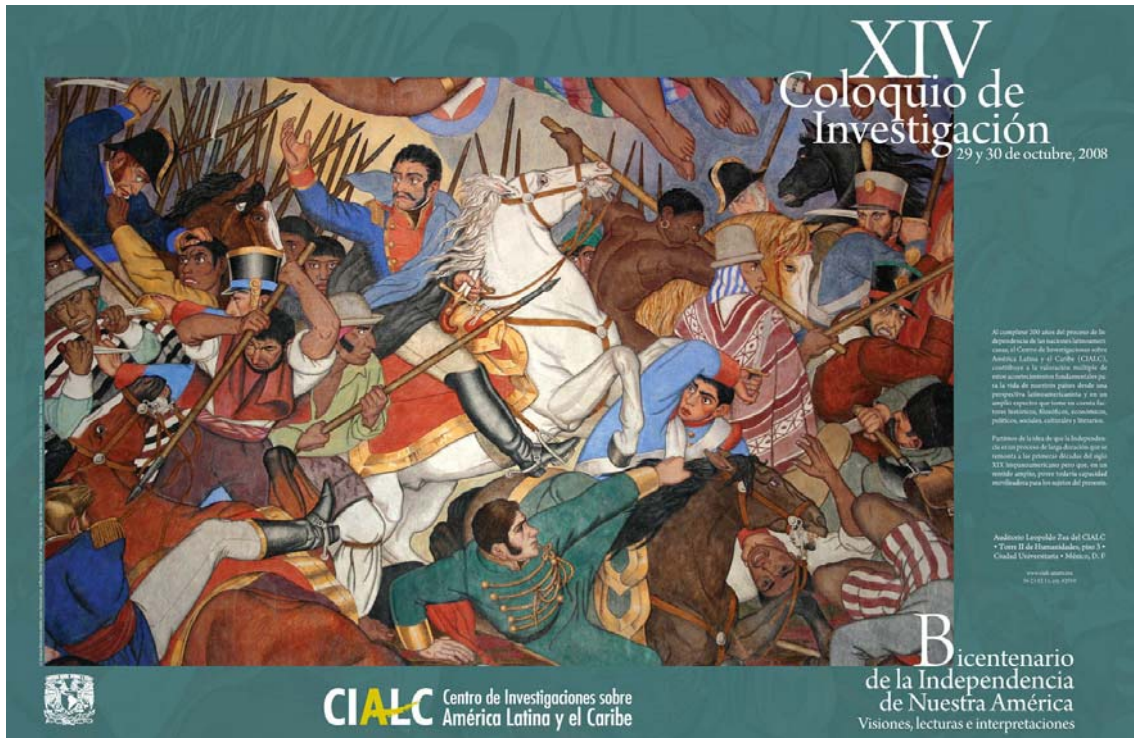
CIALC 홈페이지(www.cialc.unam.mx)

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구소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커리큘럼 개발, 디플로마과정 개설, 정기적인 콜로키움,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강연회 개최 등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와 성과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격년제로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국제 콩쿠르’를 개최하고, 수상작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 아메리카’(NUESTRA AMERICA) 같은 다양한 총서, 학술지 《콰데르노스 아메리카노스 Cuadernos Americanos》와 《라티노아메리카나 Latinoamerica》, e저널 《사상과 실천 Pensares y Haceres》,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잡지 《군도 Archipiélago》를 발행하고 있다.

계속적인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를 위한 후속세대 양성이 라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는 학부생들의 교육과는 별도로, 인문대학, 정치사회과학대학, 경제연구소, 인문학·과학학제간연구센터 등과 함께 공동학위프로그램에 참여해 600명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소속 연구원 및 교수들이 튜터, 논문지도교수, 논문심사관, 강의 교수 등 교육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는 연구소 내에 시몬 볼리바르 도서관(Biblioteca Simón Bolívar)을 두고 있다. 이 도서관은 규모는 작으나 멕시코국립대학교 내의 55개 도서관에서 옮겨 온 라틴아메리카 관련 주요 도서 22,000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0종 이상의 최신 잡지와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여 비치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세계의 우수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관련 사이트와 이 지역 신문들의 웹사이트를 링크해 두고 있다.



2008년 10월 29~30일에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가 주최한 ‘라틴아메리카 독립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최근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는 멕시코국립대학교 라틴아메리카지역학 대학원과 공동으로 역내 국가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관련 학과 설치와 연구소 개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유카탄에 본부를 둔 멕시코카리브연구학회(Asociación Mexicana de Estudios del Caribe)와 유대를 강화했으며,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연구회(CLACSO)와도 연구와 학술교류를 증진시키는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대학교가 매년 지원하는 35억 원 상당의 예산, 연구소 시설과 장비의 확충에 힘입어 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관련 최고의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다.□

조영현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